

# “투표로 민주주의 살리자”…지자체장들 대선 참여 독려

강기정 광주시장·이정선 시교육감·5개구청장 합동 기자회견  
현수막 설치·SNS 홍보 등 총력…김영록 지사 투표 대책 논의

광주·전남 광역·기초지자체장 등이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12·3 비상계엄 이후 돌로 갈라진 대한민국을 하나로 통합하는 선거이자 무너진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중요한 선거라는 점에서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21대 대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임택·김이자·김병내·문인·박병규 5개구청장이 합동으로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강 시장은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일이야말로 민생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판을 여는 길”이라며 “그 승리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투표이고, 또한 가장 중요한 일이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이 민주당의 심장이라는 점도 투표율 독려에 한 이유로 꼽힌다. 광주의 투표율(16대 78.1%, 17대 64.3%, 18대 80.4%, 19대 82%, 20대 81.5%)은 대부분 전국 최고 수준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민주당이 내란세력 적결을 위해서라도 호남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고 있다는 점도 지자체장들이 투표독려에 적극 나선 이유로 꼽히고 있다. 또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조선이라는 점에서 지역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독려까지 필요하다는 분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구는 현장 홍보 강화, 투표율 저조 지역 집중

홍보, 구 SNS 활용 등 종합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투표 당일인 6월 3일까지 홍보 활동을 적극 나선다. 지난 9일 북구청 청사 외벽에 ‘민주주의는 투표로 완성됩니다’라는 투표 독려 문구를 비롯해 (사전)투표 일자와 시간이 담긴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번 주까지 주민들이 자주 찾는 동 행정복지센터와 생활SOC시설 10개소에 관련 현수막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북구 전역을 도는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을 통해서도 투표 참여를 홍보하고 지역 인구의 약 70%가 거주 중인 공동주택 431개소에 사전 및 본 투표 전일과 당일 각 2회씩 안내방송을 송출할 계획이다. 지난 대선 투표에 참여가 저조했던 지역을 대상으로 차량 가두방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투표소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젊은 층들을 겨냥해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홍보도 이뤄진다. 북구에서 운영 중인 8개의 SNS(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카드 뉴스, 숏폼 등의 투표 홍보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사전)투표일과 투표소 안내 링크가 포함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송부한다. 마지막으로 투표소까지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등 교통편이 불편해 투표를 포기하는 주민이 없도록 투표 당일에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동구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위해 지



“6월 3일 대선 꼭 투표하세요”

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 운동을 하루 앞둔 11일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선대 장미공원앞에서 투표참여 홍보캠페인 하고 있다. /특별취재단=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역 자생단체와 유관기관, 동구 SNS 서포터즈, 마을활동가 등과 함께 투표 참여 홍보활동을 온·오프라인에서 펼칠 계획이다. 먼저 톡톡 튀는 기발한 문구를 현수막으로 제작해 육교, 간선도로 등 주요 거점 30개소에 게시할 예정이며, LED 전광판 홍보, 관내 주요 행사 시 투표 독려 캠페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전 선거일인 오는 29·30일과 선거 당일인 6월

3일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안내 방송도 실시한다. 선거일에는 어르신, 중증장애인 등이 투표 참여에 불편함이 없도록 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이동 편의도 제공한다. 전남도도 대선 투표 독려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광시설 안전점검 등을 논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핵심안건인 ‘21대 대선 공명선거 지원’과 관련해 지난 10일 마감되는 거소투표

신청 안내 등 현장 중심의 투표 참여 독려를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어느 때보다 공직자의 중립의무가 강조되는 만큼, 도와 시군 공무원이 선거 관여 등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도 나서달라”고도 했다. /특별취재단=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특별취재단=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어르신 치아 건강 집으로 찾아가 지켜드려요”

광주시, 10월까지 진료·예방관리

고령화시대를 맞아 광주시가 집으로 찾아가는 어르신 구강건강 서비스를 지원한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5월 중순부터 10월까지 북구와 광산지역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 공모 ‘노인 방문 구강건강관리 시범 사업’ 선정에 따른 것으로, 북구·광산구 보건소 치과진료팀이 직접 고령의 노인들의 가정을 방문해 구강건강 진료와 예방관리를 실시한다. 광주시는 구강건강은 영양 상태, 심혈관질환, 폐렴 등 전신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지만 고령층은 신체 기능 저하와 경제적 제약 등으로 치료 방문이 어려워 정기적으로 구강관리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광주시는 보건소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구강건강 상태 평가’, ‘개인별 구강관리계획 수립’, ‘불소 도포’, ‘구강위생교육’, ‘구강건조 예방’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북구와 광산구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동작(ADL)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거주하는 65세 이상 재가 노인 등이다. 신청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하면 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북구·광산구 보건소에서 10월까지 운영한다. 이후 보건복지부의 성과 평가와 가이드라인 고도화를 거쳐 2026년부터는 광주시 모든 자치구 보건소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고령층 구강질환 예방과 전신건강 증진에 실질적 기여를 기대하고 있다. 배강숙 건강위생과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구강건강서비스를 제공, 건강한 노후생활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주시, 일자리인식 시민 실태조사 실시

27일까지 4905가구 방문조사

광주시가 시민들의 일자리 인식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맞춤형 일자리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2025 광주시 일자리인식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국가승인통계(제205011호)로, 광주시는 3년 주기로 일자리인식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12일부터 27일까지 16일간 진행한다. 조사 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19~64세 시민으로 표본 4905가구이다. 조사원들이 가구를 직접 방문해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 내용은 일에 관한 사항, 미취업 및 구직 관련 사항, 희망 일자리, 직업교육훈련, 취업 지원정책, 경력단절여성, 광주형 일자리, 기본 인구통계 등 총 8개 부문 52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조사 결과는 올 연말 광주시 홈페이지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등을 통해 공표된다. 광주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청년층의 취업 애로 사항, 중장년 재취업 수요, 경력단절 여성의 복귀 장애 요인 등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시민 수요에 맞춘 일자리 정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올해 첫 SFTS 발생…전남도, 진드기 주의보

야외활동 시 긴옷 착용 권고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8일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양성 사례가 나왔다”고 밝혔다. SFTS 감염자는 고사리를 채취하던 80대 여성으로 발열과 가피(발진) 증상을 보여 유전자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SFTS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한다. 감염 시 1~2주 이내 38도 이상의 고열과 함께 오심, 구토, 설사 등 위장관 증상이 나타난다. 경북 김천에서는 올해 첫 사망자가 나올 정도로,

SFTS는 백신과 치료제가 없고 치명률이 높은 만큼, 농업인과 야외활동을 하는 이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환연은 야외활동 시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돗자리를 깔고 앉아야 하며 긴바지, 장갑 등을 착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올해 SFTS 감염 사례는 전국 총 6명(경기 1명, 전북 1명, 경북 2명, 제주 1명, 전남 1명)이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통계적으로 5~10월께 환자가 급증하므로 야외활동 후 고열, 어지럼증, 근육통, 식욕부진 등 증상이 있으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야외활동력을 꼭 알리고 조기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빛과 바람이 기억하는  
500년의 흥겨움

함께 만드는 영광  
같이 누리는 군민

백성포만포지

2025.5.29.목 ~ 6.1.일  
단오마당(단오제전수교육관)  
축제마당(법성포뉴타운문화광장)

주최/주관 (사)법성포단오제보존회 /법성포단오제제전위원회 후원 국가유산청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군의회 한국수력원자력주주 KH 영광군수업 공비공농림